

한국 전통 모직물의 유형과 특성

장 현 주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Wool Fabrics

Hyun-Joo Jang

Full-time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4. 7. 26 투고)

ABSTRAC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wool fabrics of the Korea. It classifies the types of wool fabrics whose name can be found in the documents by their weaving methods and it researches their characteristics by type, time, usage, and pattern.

In Wool fabric of the ancient age were there compound weaving fabric, such as *Gyesoo*, which is made with embroidery method, *Gyegum*, which is made with embroidery in gold threads, as well as general fabric, such as plain-weaved *Gal*, twill-weaved *Sagal*, gauze-weaved *Mosa*, *Mora*, etc. There were also various weaving methods, such pile-weaved *Yung*, tapestry-weaved *Tabdung*, or *Guyoo*, or *Dahm*, felt-weaved *Jeon*, etc.

It was found in documents that wool fabric such as *Gye*, *Jeon*, *Dahm* were produced in Korea and China. In case of Korea, wool fabric was enormously developed in Koguryo, Shilla, Balhai, United Shilla, Koryo era. Particularly in Koguryo and Balhai, the stock-farming and hunting were the main parts of their occupation. In Koryo era, the weaving technique of wool fabric had made great development. The wool fabric was used not only in clothing but also in official hats, rugs, wall-tapestries, etc.

Key words : *Gyegum*(계금), *Gal*(갈), *Mora*(모라), *Tabdung*(탑등), *Guyoo*(구유)

I. 서론

일반적으로 현대의 모직물은 면양에서 얻어진 양모사로 만든 직물을 말하지만 고대 모직물은 면양(양모) 이외의 동물 즉 염소류(모헤어, 캐시미어), 낙타류(낙타모, 알파카), 기타 동물류(양고라토끼, 소, 말, 개, 돼지 등)의 털로 만든 직물 혹은 이들의 털을 혼방이나 교직한 직물까지 모두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고대 서아시아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양과 양모제품들이 전래되어 처음에는 유목민의 면양사육으로 인해 모피를 사용하다가 이것이 모직물 생산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석기 시대부터 철기시대에 이르기까지 고조선의 여러 유적에서 다양한 짐승들의 뼈 유물이 출토된 점¹⁾, 말총으로 제작한 모직물이 출토된 점²⁾ 등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동물의 가죽, 털을 이용한 모피 및 모직물 생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조선시대로 가면서 견, 면, 마직물에 비해 모직물이 출토복식에서 실제로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사용빈도는 낮았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모직물을 생산하는 제작기관 및 판매기관도 있었으며 이렇게 생산된 모직물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함을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마, 견, 면 등과 교직되어서도 사용되었으며 복식의 소재 외에도 벽걸이, 카펫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고대 모직물에 관한 연구³⁾의 대부분은 문헌자료에 근거하여 모직물의 명칭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제작방법에 따라 모직물의 유형을 분류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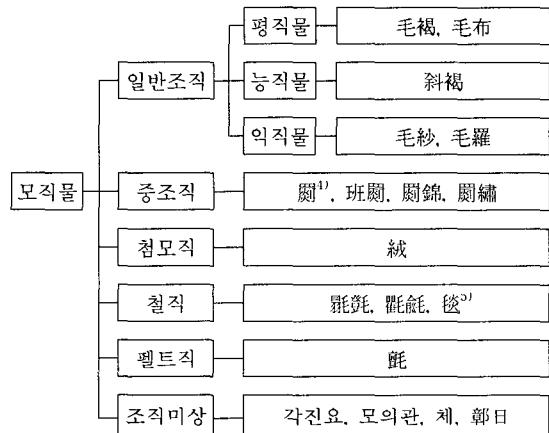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 모직물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한국 및 중국 문헌에서 모직물의 명칭을 찾아 제작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모직물의 특성을 시대, 용도, 문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 모직물의 유형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된 모직물은 견, 면, 마직물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모직물을 제작특성에 따라 평직, 능직, 익직으로 제작한 일반 직물, 중조직 직물, 첨모직물, 철직, 웨트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 1참조).

<표 1> 제작특성에 따른 모직물의 유형



1. 일반조직 직물

1) 평직물 : 毛褐, 毛布

중국 기록에 免褐, 駝褐, 毛褐布, 毛褐 등이 있는데⁶⁾褐은 토끼털, 낙타털 등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이며 인피섬유의 일종인 칡 등을 소재로 한 葛과는 다른 것이다.

褐은 《後漢書》에 毛布로 만든 것으로 가난한 자의 의복이며⁷⁾, 《說文》에는 거친 옷이라 했고, 《釋名》에는 거친 털로 짠 짧은 것으로 보통 천한 계급의 사람들이 착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大金集禮》 권 30에 서인의 집에는 오직 純紬, 毛褐, 花紗, 素羅만을 입도록 허락했다는 기록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의褐은 거칠고 두꺼운 모직물로서 고급 소재가 아니라 하층계급의 의복소재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 尼雅유적지에서 발견된 왕자가 입고 있던 겉옷이 가장자리에 고급 견직물인 錦으로 선

처리한 褐衣〈그림 1〉⁹⁾이므로 상류층에서도 거칠고 두꺼운 褐을 의료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니아 유적지에서 출토된 褐직물은 대체로 경, 위사의 밀도가 12~15×12~20/cm로서 경사보다 위사의 밀도가 큰 것이 특징이다¹⁰⁾.



<그림 1> 褐
(絲綢之路尼雅遺跡出土文物
沙漠王子遺寶, p. 28)

우리나라의 기록에 고구려에서 서민들은 褐衣를 입고, 신라 남자가 褐袴를 입었다¹¹⁾는 기록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褐은 고대부터 의복소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제주지역에는 갈옷이라는 민속복이 있다. 이 곳에서는 고대부터 가죽이나 모직물 의복을 입다가 완전히 한반도 문화권으로 편입된 조선시대에 와서는 무명, 삼베 등의 옷감에 감으로 염색하여 뺏뻣한 가죽과 유사한 느낌이 나는 갈색의 의복을 입게 되었는데¹²⁾. 이것을 褐衣 즉 갈옷이라고 한다. 비록 감물로 염색했지만 감옷이라 하지 않고 모직을 소재로 한 갈옷이라고도 하지 않으며 마치 가죽처럼 뺏뻣한 느낌을 가지며 서민들의 일상 노동복으로 사용된 점 등이 고대 모직물의 한 가지인 褐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2) 능직물 : 斜褐

중국에서는 모직물의 제작기술이 한층 발달하면서 능직으로 제작한 모직물도 생산했다. B.C 11C경의 상말, 서주초의 유물이 발견되었으며¹³⁾, 이후에도 계속해서 B.C 1~3C경의 동한시대에 경, 위사 밀도 13×16/cm의 2/2능직 斜褐유물이 출토되었다¹⁴⁾.

한국에서는 紗褐직물에 대한 문헌과 유물자료는 찾을 수 없지만 능직 보다 제작기술을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도 모직물을 만들었던 그 당시의 제작기술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익직물 : 毛羅

毛羅는 帽羅와 같으며 모자의 모를 발음대로 기록하였다고 하며 주로 관모류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견직물 羅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다¹⁵⁾. 그러나 국내에서도 毛絲로 제작된 향라로 추측하기도 하였으며¹⁶⁾, 중국에서는 견직물 중의 '羅' 어휘를 빌렸을 뿐 교경방법으로 제작한 모직물이라고 하며¹⁷⁾, 실제로 秦漢 시대에 해당하는 니아 유적지 유물에서 2經絞羅조직의 모직물이 출토되었는데 이것을 毛羅라고 분류하고 있다. 이 毛羅직물은 2가닥의 경사가 서로 교경된 후 위사 3가닥은 평직으로 제작되는 현재의 3월려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경사의 밀도는 24/cm(12組), 위사의 밀도는 18/cm(6組)이다¹⁸⁾.

우리나라에서는 毛羅의 제작법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지만 그 명칭과 용도에 대한 기록은 있다. 영조대에 편찬한 《상방정례》에 毛羅 익선관, 평천관, 원유관, 사모 등에 대한 기록¹⁹⁾이 10여건 있으며, 세종대에는 우리나라에 모자를 쓰는 자는 많으나 毛羅는 매우 드물고---동절기 야인에게 하사하는 사모에는 毛羅를 사용할 것을 청한 기록²⁰⁾이 있으며, 성종대에는 일반 서인들이 毛羅로 만든 갓을 쓰는 것을 금한 기록²¹⁾이 있다. 이것으로 毛羅는 관모에 주로 사용한 고급 소재임을 알 수 있다.

관모는 머리를 고정 및 보호하는 실용적인 역할 외에 장식적이며 계급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며 인모, 말총, 紗, 竹 등을 사용하는데 이것에는 가벼움, 통기성, 흡습성, 내구성, 부드러운 촉감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인모를 소재로 한 관모는 길이에 제한이 있어 매우 고급품에 속하며 대부분 말총, 紗 그리고 여름에는 竹 등을 소재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후기 목축업이 발달하면서부터 말을 길렀으며 B.C 2C말~1C초의 고조선 말기 유적에서 말총을 소재로 한 평직의 모직물이 출토되고 이 말총은 갓을 만드는 소재로 사용된 듯하다는 기록이 있다²²⁾. 이 보고에서는 말총을 소재로

한 모직물의 조직이 경사가 서로 평행하지 않고 교차하는 익직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 시기에 벌써 평직, 능직, 익직 등 다양한 조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으므로 익직으로 제작한 모직물도 존재 했을 것으로 추측한다²³⁾. 즉 말총은 그 길이가 60~75cm로서 모섬유를 毛絲로 만드는 별도의 기술을 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제작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며 새그물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 網狀조직과 같은 라직으로 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毛羅를 소재로 한 관모는 일반관모라기 보다는 왕실 및 관리들의 예복 및 관복의 겨울용 관모로 사용되었으며 고급으로 일반 관모 소재 보다는 훨씬 따뜻한 재질감을 가진 인모 혹은 가는 말총 등의 동물성 소재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조직은 통기성이 큰 網狀의 羅織으로 제작하였다. 추측한다.

2. 중조직 직물

중조직 직물이란 바탕조직을 이루는 경사와 위사 외에 무늬조직을 이루는 다른 별도의 경사와 위사가 있어서 문양을 표현한 것으로 여기에는 금사, 은사 및 색사를 주로 사용한다. 이와 같이 제작한 모직물에는 蘭(紋蘭, 花蘭), 錦蘭, 斑蘭, 蘭繡 등의 명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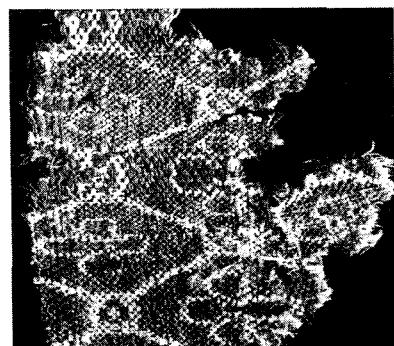
1) 蘭

평직, 능직 등의 간단한 조직으로 제작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털끝이 일어나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첨모직으로도 분류되고 있다²⁴⁾. 그러나 평직, 능직으로는 다채로운 문양을 표현하기 불가능하고, 첨모직은 유럽에서 14~16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유행했던 제작기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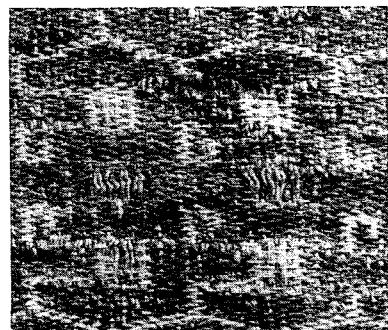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三國志》에 부여인들이 외국에 나갈 때 蘭를 입었다²⁵⁾는 B.C 1세기경의 기록이 있다. 그러므로 蘭직물은 고대 모직물 중 가장 정제한 부드러운 털로 제작한 고급 모직물이며²⁶⁾ 평직, 능직의 蘭직물도 있지만 대부분 바탕조직을 이루는 경사와 위사 외에 채색 위사로서 무늬를 만드는 중조직 직물임을 알 수 있다²⁷⁾. 즉 紋蘭, 花蘭라는

명칭으로도 불리어지는 무늬가 있는 모직물이다.

그리고 《三國史記》雜志 제2 色服條 흥덕왕 복식 금제 기록을 보면 蘭직물은 진골계급의 表衣에도 금지되었고 6두품 이하 계급에서는 대부분의 의복에 금지되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고급 모직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三國史記》권 제33 잡지 권 2 車騎의 기록을 보면 진골계급의 마구 장식인 鞍褥에도 蘭직물을 금하였던 것으로 보아 성골계급의 鞍褥에만 사용했던 고급 모직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신라의 23개 군호(일정한 군사집단)에 속한 부대들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색으로 된 衿을 부대 표식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만들어 옷깃에 달기도 했는데 이때 蘭을 비롯한 모직천 등이 사용되기도 했다²⁸⁾.



<그림 2> 紋蘭
(絲綢之路尼雅遺跡出土文物
沙漠王子遺寶, p. 79)



<그림 3> 紋蘭
(絲綢之路尼雅遺跡出土文物
沙漠王子遺寶, p. 79)

중국은 漢 초기에 이미 상당히 유행했으며 대부분 유목민족이 생활하는 지역에서 생산되어 항상 공물로 바쳤던 上品의 모직물로 알려져 있다²⁹⁾. <그림 2>, <그림 3>은 모두 니아 유적지에서 출토된 紹罽직물이며 화문과 기하 문양이 사용되었다.

① 錦罽 · 罉錦

무늬가 있는罽직물 중에는罽錦, 錦罽가 있는데 이것은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금사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서역의 모직물 제작양식이 전파되면서 금, 은사를 사용하여 각종 문양을 나타낸 것이다³⁰⁾. 다른 하나는 다채로운 색상의毛絲를 사용하여 제작한 모직물로서 문양이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마치 다채로운錦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된다³¹⁾.

특히 고려시대의 문헌에罽錦이라는 명칭이 보이는데³²⁾, 이것은 중국에서 직물에 금,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크게 유행한元代와 유사한 시기이며 또 이 시기 모직물에까지 금을 가하는 기법이 유행했다는 점³³⁾ 그리고 실제로 고려시대의 유물인 아미타불 복장유물에 금박 및 금사가 직입된 직물이 나온 점³⁴⁾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전자 즉 금, 은사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한 중조직 모직물의 한 종류로 생각된다.

② 班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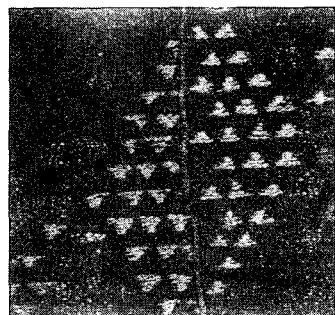
다양한 색상의毛絲를 사용하여 제작한 채색이 찬란한罽직물의 한 종류이며³⁵⁾, 班紩직물과 마찬가지로 얼룩무늬가 있는 모직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2)罽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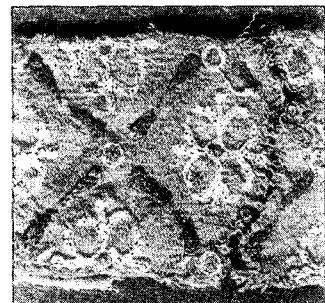
모직물을 제작한 후 여기에다 자수를 덧놓은 것으로 화려한 색사로 제작한罽직물과 유사한 외관을 가진다. 우리나라에는 통일신라시대 흥덕왕 복식금제 중 5, 6두품 여자의 표, 표상, 내상, 내의, 반비, 고등에罽繡를 금지한 기록이 있다.

<그림 4>는 상, 서주시대의罽繡직물이며 중국의 합밀 오보유적에서 발견된 것으로 홍색의毛絲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제작한 후 그 위에 백, 황, 남, 녹색 등 4색의 모사를 사용하여 평수로 작은 삼각형을 수놓았는데 작은 삼각형은 모여서 기하문을 형성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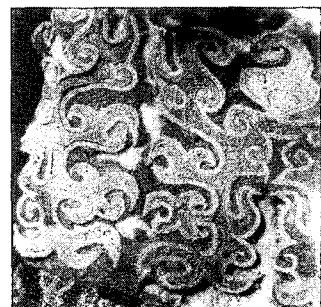
있다. <그림 5>는 니아 유적지에서 출토된靴의 발등부위에 사용된罽繡직물이며 홍색의 능직 바탕에 어둡고 밝은 갈색, 청색, 녹색의毛絲로 자수를 놓았다. 그리고 <그림 6>은 호탄에서 출토된 홍색 평조직 바탕에 녹색과 황색의 견사로 변자고수를 놓아 능문안에 인화형 화문을 표현한罽繡이다.



<그림 4>罽繡
(중국의 역대직물, p. 12)



<그림 6>罽繡
(실크로드 3000년전 -신강의 고대직물문화, p.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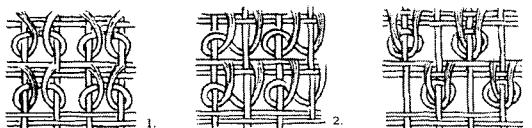
<그림 5>罽繡
(絲綢之路尼雅遺跡出土文物
沙漠王子遺寶, p. 66)

3. 첨모직물(pile 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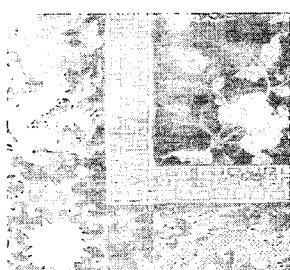
첨모직물은 파일직물이라고도 하며 직물 표면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입모나 고리가 있는 직물을 말한다. 고리를 형성하는 방법에 따라 터키식, 페르시아식, 스페인식 등이 있다(그림 7).

첨모직의 제작기술은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는 학설이 지배적이며 중국에서는 원대(A.D 1279-1368년)에 중앙아시아를 통해 페르시아로부터 그 기법이 전수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리고 실제로 16세기 말 경 포르투갈 상인이 스페인 벨벳을 중국으로 가지고 오면서 본격적으로 첨모직을 제작한 것으로 본다³⁶⁾.

이것은 대부분 의복감으로 사용되었으며 중국에서는 매우 값진 제품으로 벽걸이로도 만들어져 현재 유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기도 하다(그림 8).



<그림 7> 첨모직 조직도
(1-closed knot(터키식), 2-open knot(페르시아식),
3-spanish knot(스페인식), 織繡珍品, p. 341)



<그림 8> 縵
(직물의 역사, p. 214)

1) 縵

縵은 대개 경사로 고리를 형성하는 경파일 직물로서 여기에는 대용, 천아용 등의 종류가 있다. 周錫保는 모직물 중 거친 실로 제작한 것은 褢이라고 하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것은 縵이라고³⁷⁾ 했을 정도로 부드러운 촉감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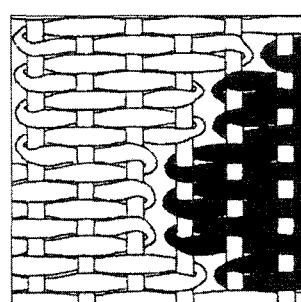
縵은 대체로 귀족 남녀의 겨울옷 등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중국 명대 가장 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명, 청대 교체시기(17세기)에 비교적 유행했다³⁸⁾. 元代에는 금을 의복에 사용하는 기법이 유행했는데 모직물에도 금을 첨가하는 기술이 있었으며 이런 기법은 주로 모직 벨벳류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³⁹⁾ 당시 매우 화려한 의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크 소재의 첨모직물은 18세기 유물인 풍산홍씨묘 官衣의 소재⁴⁰⁾ 및 대한제국시대 민철훈의 禮帽⁴¹⁾로 사용된 예가 있지만 모 소재의 첨모직물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아직 없다.

4. 철직

철직은 tapestry라고도 하며 다채로운 선염 색사로 그림을 짜 넣듯이 제작한다. 먼저 경사를 팽팽하게 건곳에 색 위사를 무늬의 색에 따라 폐매 가듯이 짜며 이것은 평직, 능직의 변화조직으로 간단한 수예적인 기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크게 본견과 양모의 태피스트리로서 서양과 동양으로 나뉘어 발전했으며 서양에서는 경사에 마사, 위사에 양모사를 쓰고 동양에서는 경, 위사 모두 본견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평직의 변화조직으로 제작한 철직의 조직도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10>은 기원전 800년대 경의 3/3 능조직의 모직물 철직으로 현재 신강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 11>은 동한에서 출토된 모 철직으로 평조직, 1/2 위능조직, 변화능직 등이 다양하게 사용된 것이다.



<그림 9> 평조직 철직의 조직도



<그림 10> 철직
(한국직물오천년, p. 13)



<그림 11> 철직
(한국직물오천년, p. 22)

1) 穢氈

氍毹는 毡氈, 毡氈라고도 하며 첨모직 또는 철직으로 제작되었다⁴²⁾는 견해가 있지만 그 제작 방법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10종 색의 穢氈가 생산된 기록과⁴³⁾ 新羅가 唐에 5색 구유를 수출한 기록⁴⁴⁾에서 구유는 5색, 10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철직은 비교적 간단하고 기본적인 손동작에 의해 제작되며 이것의 대표적인 직물로 알려진 콥트는 3~8세기경에 제작되었으며 첨모직의 대표적인 직물로 알려진 벨벳은 유럽에서 14~16세기에 크게 유행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통일신라시대에만 구유와 탑등의 명칭이 보이며 유럽에서 14~16세기에 유행한 첨모직의 제작방법이 10세기 이전 우리나라에서 벌써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하기에는 철직 기법이 더욱 용이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철직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 唐代에는 철직의 기법으로 시리아의 양모직조기법에서 유래되어 제작한 코수(k'ossu)라는 직물도 있었는데⁴⁵⁾, 우리나라 문헌에 보이는 구유 또는 구수와 그 발음도 유사한 점이 있다. 물론 코수는 실크로 많이 제작되었지만 그 제작기법은 철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구유는 다양한 색상으로 문양을 나타내기 위해 철직으로 제작한 것으로 분류한다.

구유의 대부분은 순모 혹은 야생 마섬유와 섞어 제작하는데 대개 경사에는 마사, 위사에는 모사를 사용하여 문양을 나타낸 麻毛의 교직물로 볼 수 있으며 지질이 두껍고 꽉 찬 것이 특징이다⁴⁶⁾.

《三國史記》권 제 33 잡지 권 2(器用)조의 기록을 보면 6두품, 5두품에게 구수, 탑등 등을 금한 기록이 있으므로 의복에 사용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주로 카펫, 깔개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진골계급 이상의 왕족만이 사용 가능했던 고급 모직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穢氈

蓆氈이라고도 하며 짐승 털 혹은 野生麻 섬유 등으로 제작한 것으로 원래 서역에서 생산한 것이다. 穢氈와 마찬가지로 카펫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서로 유사하지만 穢氈보다 精粗에 있어서 비교적 섬세한 모직물이며⁴⁷⁾, 기타의 문양, 제작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다⁴⁸⁾.

百濟에서 錦과 함께 穢氈을 보냈던 기록⁴⁹⁾이 있으므로 이 시기에 백제에서도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唐段公路 《北戶錄》 권 3 “《魏志》 大秦國은 야생고치로서 靑, 黃, 赤, 白, 黑, 綠, 紫, 絳, 碧 10 종 穢氈을 제작한다.”는 기록으로 보아 다채롭고 화려한 직물임을 알 수 있다⁵⁰⁾.

3) 棘

담요, 모포, 깔개 등으로 사용된 거친 모직물이다. 제작법은 카페트의 제작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타피스트리 즉 철직으로 제작하는 방법⁵¹⁾과 겉면에 털이 들키 짠 용단의 일종인 위첨 모직으로 제작하는 방법⁵²⁾의 2가지설이 있으며 이것은 서로 혼용되어 왔다.

그러나 털은 첨모직이 유행하기 훨씬 이전인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계속 문헌에 보이며 일본 정창원에 현재 보존되어 있는 다양한 깔개 종류 중 鮫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緞이라고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우선 철직으로 분류하는 편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조선철이라고 하는 모깥개류는 민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랑이, 까치, 소나무가 한 화면에 묘사되어 있는 종류들로서 대부분이 철직의 기법으로 제작하였으며 그 이름도 털으로 기록되어 있다⁵³⁾. <그림 12>는 신강의 동한 묘에서 출토된 털으로 5색의 색 위사를 사용하여 철직의 기법으로 제작한 것이다. <그림 13>은 교토 기원제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17세기 말의 毛緞으로 호랑이, 까치, 소나무가 함께 표현된 털이다.



<그림 12> 털
(중국역대직염수도록, p. 203)



<그림 13> 털
(한국직물오천년, p. 280)

한편 高漢玉과 趙豐은 재옹담을 위첨모직물에 속한다고 분류하고⁵⁴⁾, 그 유물은 철직으로 제작한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⁵⁵⁾, 吳淑生은 무늬가 없는 것을

剪絨綢 혹은 絨裁綢이라 하고 무늬가 있는 것을 剪絨花綢이라 하며 5~10색으로 구성되며 무늬는 대개 산수, 누각, 화조, 인물, 동물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⁵⁶⁾.

그러므로 털은 첨모직의 제작기술이 발전하기 전 단계 즉 12세기 이전에는 철직으로 제작하였으며 첨모직 제작기법이 발달하면서 첨모직으로 제작한 것도 털으로 분류하면서 서로 혼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펠트

펠트는 그리이스어로 '결합 시키다'는 뜻의 fulzen에서 유래된 말이며 직조나 열접착 또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양모의 순수한 특성인 scale, climp 등을 이용하여 습기, 압력, 마찰 등 물리적인 가공 방식으로 섬유를 축융시켜서 만드는 시트형태의 원단이다. 펠트는 기온과 습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양모의 특성 때문에 예로부터 자연스럽게 발견되어 모직물을 제작하기 전 단계부터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되며 용도 또한 다양하다. 펠트 모직물 중 가장 고급 품으로 대표적인 것이 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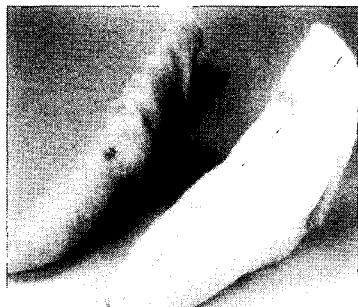
1) 鮫

毛鮫은 양이나 산양의 털을 겹쳐서 수분, 증기, 압력, 마찰 등을 가하여 축융 시킨 펠트로서⁵⁷⁾ 엄격히 말하면 직조한 것이 아니므로 직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주로 깔개로 사용했으며 특히 좌식생활을 하면서 딱딱한 바닥과 추위를 견디기 위해 방석 및 카펫의 용도로 왕, 귀족, 승려 계급에서 대부분 사용했다. 그 외에는 갑옷, 신발, 모자 등에 사용했는데 군대에서 추위와 비를 막기 위한 갑옷의 겉감으로 가장 적당한 소재가 鮫이라는 기록⁵⁸⁾이 있다.

신라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작성한 일본인의 물품구입 신청서인 《貿新羅物解》에는 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반도의 각종 향료, 약재, 염료 등과 함께 鮫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일본의 정창원에는 신라산으로 추정되는 鮫이 다수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 우리나라 대표적인 특산품임을 알 수 있다. 《상방정례》에는 鮫衫, 紅鮫, 牛毛鮫, 羊毛鮫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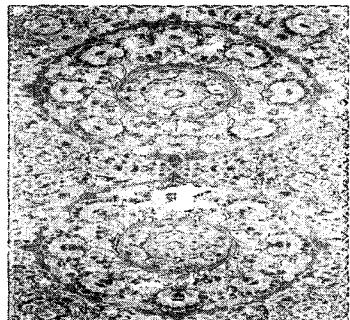
대한 기록이 있으므로 조선시대 鮎은 소, 양털을 원료로 하여 생산하여 주로 붉은 계열로 염색한 것이 왕실에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4>는 니아 유적지에서 발견된 버선의 일종이며 여기에 사용된 소재가 鮎이다. <그림 15>는 현재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新羅 產으로 추정되는 화려한 꽃무늬가 있는 花鮎이며 길이 275cm, 폭 139cm로 매우 크다. 그리고 무늬가 없는 각 色鮎도 전해지고 있다⁵⁹⁾.



<그림 14> 鮎

(絲綢之路尼雅遺跡出土文物
沙漠王子遺寶, p. 67)



<그림 15> 鮎

(正倉院裂と飛朝天平の染織, p. 134)

III. 모직물의 특성

시대, 용도, 문양별로 한국 전통 모직물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대별 특성

고대 모직물에 나타난 특성을 시대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2>는 시대별로 문헌 및 현존유물에 보이는 모직물의 종류를 정리한 것이다.

1) 삼국시대 이전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중기 유적인 중국 동북 길림성 연길현의 星星哨 유적에서 양털과 개털을 섞어서 제작한 평직 모직물이 발견되었으며⁶⁰⁾, 고조선 말기 유적인 평양시 낙랑구역 정백동 1호묘에서 말총으로 제작한 평직의 모직물이 발견되었다⁶¹⁾. 그리고 부여인이 외국에 나갈 때 繪, 繡, 錦과 함께 뜨를 입었으므로 삼국시대 훨씬 이전부터 모직물이 의료로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국시대 이전에는 한국, 중국에 모두 褥, 斜襥, 裳직물이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모직물은 중국의 문헌에서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삼국시대 이전에는 수렵생활의 영향으로 동물의 털, 가죽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예는 많았으나 국내에서 다양한 모직물의 종류가 생산, 유통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2)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고구려, 통일신라, 발해 등지에서는 지리 환경상 수렵생활과 밀접한 모직물 및 가죽제품이 의료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 중 고구려와 발해는 생업 가운데 목축업과 사냥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고구려에서는 가죽 수공업이 발달했다. 특히 통일신라의 관청 수공업 직조기관으로 朝霞房, 錦典과 함께 毛典이 있어 모직물을 전문적으로 제작하였으며⁶²⁾. 신라 진골 귀족 가문의 개인 공방에서도 모직물의 제작은 이루어졌으며⁶³⁾, 흥덕왕 복식금제의 기록에는 裳, 裳繡, 鮎縠, 鮎 등의 모직물명이 보인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시기에 비해 훨씬 다양한 모직물이 국내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문헌기록과 유물이 부족하여 정확한 제작법은 알 수 없지만 각진요, 장일, 체 등 중국의 문헌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모직물 명칭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시대별 한국 및 중국의 모직물 종류⁶⁴⁾

시기	B.C 21C	B.C16C ~B.C 11C	B.C11C ~B.C 8C	B.C8C ~B.C 3C	B.C3C ~A.D 3C	3C~6C	6C~13C	13C말 ~ 15C	15C ~ 17C	17C ~ 20C	
	한국	고조선					삼국시대	발해	통일 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종류	원시 사회	상	주	춘추 전국	秦漢	위진남북조	수당	원	명	청	
毛布	■					■	■	■	●		
褐	●					●	●	●	○		
斜褐	●					■	○	■	○		
毛羅	○					■	■	■	◎		
毛紗	○										
罽	●					●	●	●	○		
罽錦								○			
紋罽	○										
班罽	○										
罽繡	○					■	○				
毯	○					●	●	●	●		
栽絨毯	○					■	■	■	○		
絨									○		
氈	○					●	●	●	●		
氍毹						●					
氍毹						●	●				
각진요						○	○				
모의관								○			
체							○				
鄣日						○					

● : 한국, 중국 모두 존재했던 모직물

○ : 한국에 존재했던 모직물

○ : 중국에 존재했던 모직물

■ : 한국, 중국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직물

3) 고려시대

우리나라 역사상 제직법이 가장 발달하여 화려한 직물을 생산했던 고려시대에는 모직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했던 畷匠이 잡직서에 소속되어 있었다⁶⁵⁾.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국가에서도 전문적으로 모직물을 생산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모직물 생산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 의종 조의 기록에는 금나라로부터 양 2000마리를 들여 온 기록을 찾을 수 있으므로 양털을 사용한 모직물의 제작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褐, 畉, 畉錦, 毯, 氈, 氈 등은 畉 직물에 금, 은사 등을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

한 것으로 직물에 금은을 많이 사용했던 중국의 원대와 거의 유사한 시기인 고려시대에는 화려한 모직물을 생산했음을 알 수 있다.

4) 조선시대

다른 시대에 비해 출토복식자료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출토직물 중에는 견, 면, 마직물에 대해서만 보고 될 뿐 모직물이 출토되었다고 보고된 예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중앙관부 소속의 공장 즉 毛衣匠, 毛冠匠, 氈匠 등을 두고 전문적으로 모직물을 취급한 것을 알 수 있으며⁶⁶⁾, 세종임금이 毛衣를 입었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복뿐만 아니라 관

모, 주머니, 의자덮개, 이불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⁶⁷⁾, 실제로 갓저고리나 이엠, 풍차, 남바위, 볼끼 등 쓰개류의 가장자리에 텔장식을 한 유물들은 현재 박물관에 많이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갖옷과 텔로 만든 방한구 등의 毛物을 팔던 가게인 毛物廛(毛衣廛이라고도 함)이 있었으며 이들이 모여 毛物契⁶⁸⁾를 조직하고 호조에 짐승의 텔가죽을 공물로 바쳤다는 기록 등으로 보아 실제로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毛布, 毛羅, 窼, 緣, 鮎 등의 명칭이 있으며 이 중 窼, 鮎, 緣직물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제작했던 것이다.

2. 용도 특성

고대부터 우리 민족은 모직물을 의복에 뿐만 아니라 관모, 신발, 깔개, 벽걸이, 담요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했다.

1) 복식류

복식류 즉 의복, 모자, 신발 등에 사용된 모직물의 종류에는 褐, 窼, 絨, 毛羅, 鮎 등이 있다. 첫째, 고대 모직물 중 의복의 소재로 사용된 것으로는 窼, 褐, 絨 등의 종류가 있다. 이 중 窼은 가장 정제하며 고급의 료로서 다양한 색사와 금사를 사용하여 다채롭고 화려하게 문양을 표현한 것이며 錦窼, 窼錦, 班窼, 窼繡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부여인이 외국에 나갈 때 繡錦 등의 고급 견직물과 함께 착용하기도 한 窼직물은 전골계급의 表衣에 조차 금지되었으며 6두품 이하계급의 대부분의 의복에 조차 금지하였던 것으로 보아 매우 고급 의복소재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絨 또한 귀족 남녀의 겨울옷의 소재로 사용되었으며 褐은 서민들의 의복소재로 주로 사용되었다.

둘째, 毛絲를 교경하여 의직으로 제작한 毛羅직물은 조선시대 왕의 관모뿐만 아니라 야인에게 하사하는 겨울용 사모에도 사용했으며 그 외 중직물인 窼, 첨모직물인 絨, 펠트적인 鮎 등의 모직물은 겨울용 모자에 사용되었다.

셋째, 窼직물을 제작한 후 자수를 놓은 窼繡직물이 靴의 소재로 사용되었으며〈그림 5〉 모 섭유를 축

용 시킨 펠트 종류인 鮎은 갑옷, 신발, 모자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그림 14).

2) 깔개

毛는 의복 보다는 비교적 깔개, 덮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기록을 많이 볼 수 있다. 깔개용으로 사용된 모직물의 종류는 鮎氈, 鮎氈氈, 緣氈, 鮎氈 등이다.

통일신라 흥덕왕 복식금제조의 기록을 보면 5두품, 6두품의 물품에 鮎氈, 鮎氈氈 등의 사용을 금한 기록⁶⁹⁾이 있으므로 이것은 의복에 사용된 것은 아니고 진골계급 이상의 왕족만이 사용하는 카펫, 깔개 등의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며 통일신라시대 국내에서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카펫류의 鮎과 緣은 현재 일본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태종대에는 예조에서 혼인의 사의를 올린 내용 중 신혼시절에 窼를 이불과 함께 깐다고 되어 있으므로⁷⁰⁾, 窼직물도 화려한 깔개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담요

緣은 담요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4) 벽걸이

첨모직으로 제작한 絒은 벽걸이로 사용되었다.

3. 문양 특성

모직물에는 문직물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제작특성이 알려진 모직물의 종류 중 평직물의 毛布와 毛褐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는 모두 문직물이며 이 문직물을 대상으로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 및 문양의 종류 등 특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문양의 표현 방법

문직물 중에서도 제작에 의한 문양염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직물에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은 지문법과 직금법으로 제작하는 직조법, 남방염, 판제염, 홀치기, 금박 등의 염색기법을 응용한 인염법, 무늬가 없는 두터운 비단에 오색 비단사와 금사 등으로 자수를 하여 문양을 표현하는 자수법,

그리고 무늬 없는 직물에 붓으로 직접 그려 문양을 표현하는 채회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모직물에는 지문법과 직금법, 즉 직조법에 의해 문양을 표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 자수기법을 활용한 경우도 있지만 염색 및 채회법을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즉 일반 모직물에는 바탕과 무늬부분에 동일한 색의 실을 사용하면서 조직에 변화를 주어 문양을 표현하는 지문법을 사용하여 단색으로 은은하게 표현하였으며, 중조직 모직물인 텐종류에는 금사, 은사, 색사 등을 사용하여 문양을 바탕에서 분리시켜 표현하는 직금법 및 자수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색으로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철직, 첨모직 등으로 문양을 표현한 모직물도 일종의 직조법에 의해 문양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문양의 종류

전통문양을 소재에 따라 용, 봉황, 학 등의 동물문양, 연화, 당초, 보상화, 모란 등의 식물문양, 雷紋, 亞字 등의 기하문양, 그리고 문자, 칠보, 팔보 등의 기타 길상문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고대 모직물에는 특히 기하학적인 문양과 식물문을 사용한 경우가 월등하게 많으며〈사진 2.3.4.5.6.10〉 한국 전통 모직물에는 동물문, 식물문양 등이 사용된 경우를 볼 수 있었다(사진 11).

IV. 결언

1. 고조선 시대 유적지에서 이미 모직물이 발견된 바 있으며 고대 유목 생활 가운데 면양을 사육하면서 시작되어 처음에는 모피를 사용하다가 직물 생산으로 발전하였다. 한 때 동물의 털이라서 불결하다는 이유로 의복에 사용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였지만 직물 중 가장 다양한 조직으로 제작되어 의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2. 고대 모직물은 평직으로 제작한 毛褐, 毛布, 능직으로 제작한 斜褐, 익직으로 제작한 毛紗, 毛羅 등의 일반직물 외에도 자수기법을 사용한 膚繡, 織金기

법을 사용한 膚錦 등의 중조직 직물, 첨모조직을 사용한 絨, 철직으로 제작한 雕氈, 雕氈, 棱, 펠트직인 氈 등으로 다양하다.

3. 한국의 모직물은 고구려, 신라, 백해, 통일신라, 고려시대에 크게 발달했으며 특히 제작기술이 발달하여 화려한 직물을 제작할 수 있었던 고려시대에는 중조직 기법을 사용한 膚錦을 제작한 기록이 있다. 삼국시대에는 雕氈와 雕氈을 제작한 기록이 있으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계속해서 그 명칭을 볼 수 있는 모직물은 膚, 氈, 棱이다. 조선시대는 출토복식자료가 풍부하고 모직물이 생산, 유통된 기록도 있지만 출토직물 중에는 모직물이 출토되었다고 보고된 예는 거의 없다.

4. 고대부터 모직물을 의복에 뿐만 아니라 관모, 깔개, 담요, 벽걸이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했다. 대부분의 의복에는 褐, 膚, 絨이 사용되었고, 갑옷에는 氈, 관모에는 毛羅, 깔개에는 雕氈, 雕氈, 棱, 氈 등이 사용되었다.

5. 모직물에는 문직물이 많으며 문직물 중에서는 제작에 의한 문양염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주로 지문법, 직금법, 자수기법, 철직, 첨모직 등으로 문양을 표현했다. 문양은 기하학적인 문양과 식물문양이 많이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 1) 박선희 (2002). 한국고대복식. 서울: 지식산업사, pp. 44-47.
- 2)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89). 조선유적유물도감
2. 고조선·부여·진국편, p. 109.
- 조선기술발전사 편찬위원회 (1997). 조선기술발전사 1, 원시·고대편. 평양: 과학백과사전총합출판사, p. 68.
- 3) 박순지, 이춘계 (1993). 명칭으로 본 모직물의 발달 -고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복식 21, pp. 19~30.
박순지, 이춘계 (1994). 고대부터 고려까지의 모피물에 관한 고찰. 복식 22, pp. 193~204.
민길자 (1992). 한국전통 섬유제품의 발굴 1 -모제품(carpet, rug)를 중심으로-. 복식 18, pp. 21~34.
민길자 (1991). 조선시대의 皮, 毛物에 관한 연구. 국민대 교육연구소 교육논총, 11(1), pp. 115~137.
- 4) 평직, 능직의 崋직물도 있지만 중조직에서 설명하기로

- 한다.
- 5) 緇은 첨모직으로 제작했다는 견해와 철직으로 제작했다는 2가지 견해가 있으나 철직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 6) 沈從文 (1981). 中國古代服飾研究. 臺北: 龍田出版社, p. 260.
 - 7) 後漢書 趙典傳
 - 8) 周汛, 高春明 편저 (1996).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 辭書出版社, p. 537.
 - 9) 趙豐 于志用 主編 (2000). 絲綢之路尼雅遺跡出土文物 沙漠王子遺寶. 香港: 藝紗隊, pp. 28~30.
 - 10) 賈應逸 (1980). 略談尼雅遺跡出土的毛織品. 文物, 제3기, p. 78.
 - 11) 해동역사, 제 20권 예지 3
 - 12) 김인호 (1990). 제주문화의 뿌리 14-18. 제주신문 이해선 (1991). 제주도 갈웃의 유래 및 제작방법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33, p. 166, p. 168.
 - 기진연 (1995). 染염색에 의한 색재효과. 한국색채교육학회지, 4회, p. 46.
 - 박덕자 (1998). 매엄제와 자외선을 처리한 직물의 감지 염색. 제주대학교 농화학과 석사학위논문, p. 9.
 - 13) 심연옥 (1998). 중국의 역대직물. 서울: 한림원, p. 12.
 - 14) 高漢玉 (1986). 中國歷代織染繪圖錄.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上海科學技術出版社 合作, p. 19.
 - 15) 조효숙 (2003).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동래정씨 흥곡공 일가 묘 출토직물에 관한 연구. 경기도 박물관, p. 71.
 - 16) 심연옥 (2001). 사(紗), 라(羅)직물의 제작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 19호, 서울: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p. 11.
 - 17) 何堂坤, 趙豐 (1998). 中華文化通志 제 7편 紡織與鑄冶志. 上海: 人民出版社, p. 156.
 - 18) 賈應逸 (1980). 앞의 논문, p. 79.
 - 19) <상방정례>: 상의원 출입에 관한 규정을 기록한 책. 왕실 각 전궁의 의상 등을 받아 보던 곳으로 탄일, 명절, 연례진상 이외에도 수시로 진상
 - 20)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1집 세종 093 23/07/03(정유)
 - 21)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1집 성종 028 04/03/03(계사)
 - 22) 박선희 (2002). 앞의 책, p. 50.
 - 23) 高漢玉 (1986). 앞의 책, p. 19. 모직물에는 평직, 능직, 위중조직, 라직, 철직 등이 있다
 - 24) 김용문, 조효숙(2000). 신강의 고대직물 문화 실크로드 3000년. 온양: 온양민속박물관, p. 259.
 - 25) 三國志 위치 권 30 동이전 30 부여
 - 26) 高漢玉 (1986). 앞의 책, p. 19.
 - 27) 賈應逸 (1980). 앞의 논문, p. 79.
 - 손영종, 조희승 (1990). 조선수공업사 1. 서울: 백산자료원, p. 264.
 - 28) 三國史記, 제 40권 志9 職官下武官 57. 손영종, 조희승 (1990). 앞의 책, p. 264.
 - 29) 周汛, 高春明 (1996). 앞의 책, p. 535.
 - 30) 민길자 (1997). 전통옷감. 서울: 대원사, p. 123.
 - 31) 周汛, 高春明 (1996). 앞의 책, p. 536.
 - 32) 高麗史, 제2권 세가 제2 혜종 을사 2년(945)
 - 33) 沈從文 (1981). 앞의 책, p. 395. 중국 원대에는 견직물의 제작기술과 금을 사용하는 기법이 유행하면서 견직물에 금을 가한 鐵金錦이 발달했으며 봉고어로는 이것을 納石失이라고 한다.
 - 34) 김미자, 조효숙 (1991). 1302년 아미타불복장물의 조사 연구. 온양: 온양민속박물관, p. 121, pp. 131-131.
 - 35) 吳淑生, 田自兼 (1986). 中國染織史. 上海: 人民出版社, p. 86.
 - 何堂坤, 趙豐 (1998). 앞의 책, p. 156.
 - 36) 카스 월슨 저, 박남성 차임선 역 (2000). 직물의 역사. 서울: 예경, p. 205.
 - 37) 周石保 (1984). 中國古代服飾史.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p. 510.
 - 38) 周汛, 高春明 (1996). 앞의 책, p. 532.
 - 39) 沈從文 (1981). 앞의 책, p. 395.
 - 40) 박성실 (1994). 천안출토 풍산홍씨 유물소고. 한국 복식, 12호. 서울: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p. 143. 관의의 소재로 별문단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첨모직으로 제작한 것임.
 - 41) 유희경, 이강칠, 허동화, 이순자 (1991). 대한제국시대 문무관복식제도 문물전 카다로그 부록. 서울: 한국자수박물관. 흑색천 아계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첨모직으로 제작되었다.
 - 42) 민길자 (1997). 앞의 책, p. 23.
 - 43) 박순지, 이춘계 (1994). 앞의 논문, p. 27.
 - 44) 삼국사기 만불산조.
 - 45) 카스 월슨 저 박남성 차임선 역 (2000). 앞의 책, p. 204. 원래는 금이 간 실크라는 의미이며 디자인에 작은 slit이 간 것으로 수출품에서 제외될 정도로 매우 값진 제품이다.
 - 46) 周汛, 高春明 (1996). 앞의 책, p. 537.
 - 47) 周汛, 高春明 (1996). 앞의 책, p. 537.
 - 박순지, 이춘계 (1994). 앞의 책, p. 27.
 - 48) 민길자 (1997). 앞의 책, p. 23.
 - 49) 日本書紀, 欽明天皇 15년 12월.
 - 50) 周汛, 高春明 (1996). 앞의 책, p. 537.
 - 51) 高漢玉 (1986). 앞의 책, p. 203.
 - 심연옥 (1998). 앞의 책, pp. 277~287.
 - 52) 趙豐, 于志用 (2000). 앞의 논문, p. 80.
 - 吳淑生, 田自兼 (1986). 앞의 책, p. 223.
 - 53) 심연옥 (1998). 앞의 책, pp. 280~287.

- 54) 高漢玉 (1986). 앞의 책, p. 19.
 何堂坤, 趙豐 (1998). 앞의 책, p.157.
- 55) 高漢玉 (1986). 앞의 책, p. 203.
- 56) 吳淑生, 田自兼 (1986). 앞의 책, p. 223.
- 57) 吳淑生, 田自兼 (1986). 앞의 책, p. 222.
 奈良國立博物館 (1998). 正倉院展.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p. 61.
- 58) 《성호사설》 권 13 人事門
- 59) 布目順郎, 앞의 책, pp. 170~171.
- 60) 민길자 (1997). 앞의 책, pp. 117~118.
 박선희 (2002). 앞의 책, p. 44 재인용.
- 61) 조선기술발전사 편찬위원회 (1997). 앞의 책, p. 68.
- 62) 三國史記 第 39券 志 8 職官中 13 “毛典〈景德王〉改爲聚毳房 後復故” 경덕왕때 취취방으로 고쳤다가 뒤에 이전 명칭으로 회복시켰다. 국왕, 귀족이 사용하기 위해 양털을 모아 직조한 곳.
- 63) KBS 역사 스페셜 DVD 제14회 신라산 양탄자는 일본 최고의 인기상품이었다.
- 64) 周石保 (1984). 앞의 책, p. 442, p. 510.
 沈從文 (1981). 앞의 책, p. 260.
- 吳淑生, 田自兼 (1986). 앞의 책, p. 7, p. 25, p. 37, p. 44, p. 86, p. 114, p. 154, p. 222, p. 252, p. 284.
- 周汎, 高春明 (1996). 앞의 책, pp. 531~537.
 高漢玉 (1986). 앞의 책, p. 19.
 손영종, 조희승 (1990). 앞의 책, p. 207, p. 256, p. 335.
- 65) 高麗史 80卷 志34 食貨 3 祿俸 諸衙門工匠別賜
- 66) 경국대전 공전 경공장 및 외공장조
- 67)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1집~제3집 태종 035 18/05/03(임자), 세종 027 07/02/24(갑자), 세종 046 11/12/22(경오), 세종 062 15/10/14(계해), 세종 062 15/10/23(임신), 세종 093 23/07/03(정유), 성종 02804/03/03(계사), 연산 037/06/03/16(경오), 중종 041 16/01/24(정축), 숙종 063 45/02/01(갑진), 정조 042 19/02/22(갑진), 정조 048 22/01/15, 순조 032 32/07/21(을축)
- 68) 貢契는 대동법 실시 이후 궁중, 관청에서 쓰는 물품을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貢物主人, 貢人, 主人, 契貢人이라고 하는 제인들이 조직한 계
- 69) 삼국사기 권 제33 잡지 권 2 器用
- 70)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1집 태종 035 18/05/03(임자)